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07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서영진·박진형·김제리·우형찬·

박운기·김희걸·최판술·김혜련·

신원철·신건택·이혜경 의원(11명)

1. 주 문

- 수서발 고속철도(이하 SRT) 노선의 요금이 KTX 노선에 비해 10%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대부분의 이용고객이 강남권 주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철도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SRT 수준에 맞게 KTX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2016년 12월 SRT 노선이 민간운영하는 형태로 개통하였고 운행요금의 경우 민영화 논란등의 이유로 서울발 KTX 대비 약 10%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KTX와 SRT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역까지의 접근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금 인하 혜택은 대부분의 SRT 고객인 강남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러한 혜택 불균형은 단순한 요금혜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프라는 강남·북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철도요금은 오히려 강북지역에게만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해서 형평성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 나. 정 부 :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다. 기 관 :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철도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철도산업이 독점구조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국민부담의 악순환을 끊고 발전적 형태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이하 ‘SRT’)을 민간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SRT 노선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관리하되, 민영화 논란등의 이유로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발 KTX 대비 약 10%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수서)~부산 기준 KTX 일반 요금은 59,800원인데 비해 SRT요금은 52,600원으로 SRT 요금이 7,200원, 약12% 저렴하다.

하지만 관련 조사에 따르면 SRT 선택의 이유로 ‘역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거리가 먼 강북 지역 주민이 아닌 인근 강남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혜택 불균형은 단순한 요금혜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에 대한 강남·북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반해 철도요금은 강북지역 주민만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간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넓은 좌석, 충전콘센트 등이 기본설치된 신형차량은 SRT 노선에 우선 투입되고, 서울·용산 노선은 구형 KTX 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KTX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해서 형평성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7.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